

부활의 증인들(1)

Witnesses of the Resurrection (1)

"여자여, 누구를 찾느냐"

Woman, who is it you are looking for?

(요한복음 John 20:1-18)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을 전합니다. 묵상과 기도의 사순절/부활절이 지나면, 다시 영적으로 후퇴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일상 속에서 일궈 내기 위해 5주간 연속 설교를 마련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생생한 증언과 함께 우리도 ‘부활의 산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한걸음 더 나가서 우리 삶 속에서 매 순간 ‘작은 부활’이 일어나길 축복해 드립니다.

Dear brothers and sisters in KUMC, I convey the peace of the risen Lord to you. After meditation and prayer for Lent and Easter, we tend to retreat spiritually. So, I have prepared a sermon series for next five weeks to help you realize the news of the resurrection in our daily lives. I hope that we will also be 'living witnesses of the resurrection' with the vivid testimony of meeting the resurrected Lord. Going one step farther, I hope you experience a little resurrection every minute of your lives.

요한복음의 마지막 2장은 부활 사건을 아주 생동감 넘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덤을 찾았던 한 여인의 눈길로 예수 부활을 바라봅니다. 먼저 본문의 구조를 함께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20:1-18은 ‘병행 구조’ (Parallel Structure)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치 시편이나 다른 시가서를 읽는 느낌마저 듭니다.

- 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다] (v.1)
- 나 [두] 제자에게 [주님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vv.2-9)
- 다 제자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v.10)
- 나' [두] 천사에게 [주님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vv.11-17)
- 가'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다] (v.18)

The last two chapters of John's Gospel vividly portray the resurrection. Today's sermon is for us to see Jesus' resurrection in the eyes of a woman who went to the grave. First, let's look at the structure of the scripture together. John 20: 1-18 consists of a parallel structure. It looks like reading a psalm or other poetry.

- A. Mary Magdalene went to the tomb (v.1).
- B. To the two disciples, [we don't know where they have put the Lord!] (vv.2-9).
- C. The disciples went back to where they were staying (v.10).
- B' To two angels, [I don't know where they have put the Lord] (vv.11-17).
- A' Mary Magdalene went to the disciples (v 18).

본문을 이렇게 해체해보면 그 구조 뿐만이 아니라, 말씀의 강조점과 대비점에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십시오. 요한 복음은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 부활 사건의 첫 증인으로 소개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함께 갔던 다른 여인들도 등장하지요. (마태 28장, 마가 16장, 누가 24장 참조) 유독 요한복음만 마리아 혼자 무덤을 찾아간 것으로 기록했나요? 아니에요, 여럿이 함께 갔지만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한 여인을 주목해 본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글성경에는 잘 드러나 않아요. 하지만 영어 성경은 분명히 여러 명이 함께 갔음을 독자들에게 말해 줍니다. 안식 후 첫 날 이른 새벽에 예수 무덤에 달려 간 여인, 정말 깜짝 놀랍니다. 무덤 어귀를 막은 육중한 돌문은 이미 옮겨져 있습니다. 이 여인은 조금 뒤 ‘열린 무덤’ 현장에 온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 말합니다.

If we disassemble the scripture like this, it becomes clear that not only the structure, but also where the emphasis and contrast of the Words are. Now, let's get into the scripture together. The Gospel of John introduces Mary Magdalene as the first witness to the resurrection of Jesus. In other Gospels, other women who went together also are mentioned (refer to Matthew 28, Mark 16, Luke 24). Did only the Gospel of John record that Mary went to the tomb alone? No, several women went together, but the author of the Gospel of John particularly noticed this woman. How can we know? It is not evident in the Korean Bible. But, the English Bible clearly tells readers that several women went together. The woman who ran to Jesus' tomb in the early morning of the first day of the week is really surprised. The massive stone blocking the tomb entrance has already been moved. This woman speaks to Peter and the other disciple who came to the scene of the 'open tomb' a little later.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20:2)

They have taken the Lord out of the tomb, and we do not know where they have laid him. (John 20:2, ESV)

과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기에 요한복음 저자는 다른 여인들을 다 관심 밖으로 밀쳐내고, 이 한 여인에게만 집중하는 걸까요? 왜 마리아에게 예수 무덤을 처음 찾아간 영광을 부여했을까요? 아마도 요한복음의 주제인 ‘사랑’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여인입니다. 누가 복음은 일곱 귀신 들렸다가 고침 받은 여인 (누가복음 8:2)으로 소개합니다. 성서 학자들 사이에 다른 의견도 있지만, ‘죄 많은 여인’으로 묘사됩니다.

Who is this Mary Magdalene indeed? Why does the author of John's Gospel place the other women out of attention and concentrate on this one woman? Why did he give Mary the glory that she is the woman who went to Jesus' tomb first? Perhaps we can think that it is directly related to 'love,' the theme of John's Gospel. Mary is a woman who has experienced the Lord's love that she could not afford. Luke introduces her as a woman from whom seven demons come out and who had been cured of evil spirits and diseases (Luke 8:2). There are other opinions among Bible scholars, but she is portrayed as a woman of many sins.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누가복음 7:37-38)

A woman in that town who lived a sinful life As she stood behind him at his feet weeping, she began to wet his feet with her tears. Then she wiped them with her hair, kissed them and poured perfume on them (Luke 7:37-38).

도대체 어떤 죄인지, 얼마나 수치스런 과거의 낙인지 찍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부정할 수 없는, 동네가 다 아는 공식 죄인이라는 점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 죄의 크기만큼, 무게만큼 주의 사랑을 더 묵직하게 느꼈을 겁니다. 그 사랑, 그 은총,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 앞에 고꾸라집니다. 멈출 수 없는, 도저히 통제가 불가능한 감사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자기 눈물로 예수 발등을 흥건히 적시고, 또 자기 머리털로 찬찬히 닦아 냅니다. 싸늘한 비판쟁이 바리새인들이 참다 못해 중얼대기 시작합니다.

We do not know what sins she committed, nor how shameful a stamp of sins she had from her past. What is clear is that this woman was undeniably a sinner whom everyone in the village knew. This woman would have felt the love of the Lord more deeply as much as the size and weight of her sins. The woman falls down before the Lord's love, grace and blessing because she cannot bear it. She cannot control unstoppable tears of gratitude flowing down from her eyes like a waterfall. She soaks His feet with her tears and then slowly wipes them with her hair. The cold-hearted Pharisees cannot stand to watch and start to mumble.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누가복음 7:39b)

“If this man were a prophet, he would know who is touching him and what kind of woman she is—she is a sinner!” (Luke 7:39b).

짧은 한 절 속에 세가지 마음, 세가지 눈빛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에 도취되어 예수와 여인을 번갈아 보며 정죄합니다. 여인과 예수는 귓전에 들려오는 비난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를 응시합니다. ‘아무 것도 내세울 것 없는 죄인이 당신 발 밑에 있습니다.’

Three hearts and three eyes are shown in this short paragraph. The Pharisees are driven by their own justice and look at Jesus and the woman alternately and condemn them. The woman and Jesus stare at each other, ignoring the criticism that comes into their ears. 'There is a sinner under Your feet who does not have anything to show.'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세상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한다.’ 심지어 주님은 이 여인을 따뜻하게 품기 위해 예언자의 눈마저 달아 버리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떠들어대던 개의치 않으십니다. 이 가련한 여인의 쓰라린 과거도 기억치 않으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주홍빛 같던 여인의 죄를 벌써 양털 같이 희게 해 주셨지요.

‘My lovely daughter! I love you more than anything in the world.’ The Lord even closed a prophet's eyes in order to embrace this woman warmly. He did not care what Pharisees say loudly at all. He did not remember this poor woman's bitter past. Like the East is far away from the West, He has whitened her scarlet sins like a lamb's fur.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40-43)

“여기에 오백 데나리온 빚진 자, 오십 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 둘 다 모두 탕감 받았다면 누가 더 큰 사랑을 받았느냐? .. 더 많이 탕감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 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 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Jesus answered him. (Luke 7:40-43) “One owed him five hundred denarii, and the other fifty. If he

canceled the debts of both, which of them will love him more? ..I supposed the one who had the bigger debt canceled.” “When I came into your house, you did not give me any water for my feet. But she wet my feet with her tears and wiped them with her hair. You did not give me a kiss, but this woman has not stopped kissing my feet. You did not put oil on my head, but she has poured perfume on my feet.”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 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누가복음 7:47)

Her many sins have been forgiven—for she loved much.

But he who has been forgiven little loves little. (Luke 7:47)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에서 치유 받았든지, 눈물로 사랑의 사침을 가졌든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큰 사랑을 받았던 이 여인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등장시킵니다. 이 여인이 제자들보다 먼저 무덤 안을 살펴 보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먼저 도착한 제자는 몸을 굽혀 무덤 안을 살펴볼 뿐 무덤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수장인 베드로가 빈 무덤 속을 처음 확인한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가지 수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It was certain that Mary Magdalene was loved by the Lord very much although she was healed from an evil spirit, she had fellowships of love with tears, or people in the world pointed fingers at her. The writer of the Gospel of John showed this woman who received big love from the Lord as the first witness of the resurrection of the Lord. It is not clear that this woman examined the tomb inside first prior to the disciples. The disciple who came early bent his back and only looked at the tomb inside, but he did not go inside the tomb. The head of the early church, Peter, was described as the first one who confirmed the empty tomb. At the very moment, we can discover one suspicious thing.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베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있었다. (요한복음 20:7)

The burial cloth that has been around Jesus’ head was folded up by itself, separate from the linen. (John 20:7)

만약 당시 종교지도자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광신도들이 시신을 탈취했다면, 얼굴을 덮었던 수건이 정갈하게 한 편에 개어져 있을 수 없지요. 삼엄한 경비를 뚫고 시신을 탈취하면서, 그런 여유를 부릴 수 없었겠지요. 또 단순 절도사건이라면 값비싼 세마포를 현장에 버리고 갈 리도 만무하고, 굳이 죽은 시체를 가져갈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개연성은 주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마리아와 베드로는 빈 무덤을 똑똑히 목격하고도 부활을 깨닫지 못합니다.

If fanatic followers of Jesus had stolen the dead body as the religious leaders at that time were concerned, the burial cloth that had been wrapped around Jesus’ head would not have been folded up neatly. They couldn’t have afforded such a composure of folding the burial cloth while stealing the dead body under tight security. Also, if it were a simple robbery, the expensive fine linen cloth would have been stolen instead of the dead body. Then, the last probability would be that Jesus rose from the dead, as He always had told His disciples. Although Mary and Peter clearly witnessed the empty tomb, they could not realize the resurrection of the Lord.

두 제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마리아만 텅 빈 무덤 앞에 서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 마리아가 되어 보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도 억울한데 장사 지낼 시신마저 도둑 맞았습니다. 빈 무덤, 열린 무덤을 보면서 오히려 이제는 마지막 인사조차 나눌 수도 없구나. 극한 슬픔과 아쉬움이 밀려옵니다. 자 보세요. 한번 마음 속을 점령한 편견과 고정관념은 돌처럼 딱딱해 집니다.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머리맡과 발치에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는 천사인 줄도 모르고 또 똑같은 대답을 늘어진 축음기 돌리듯 쏟아냅니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육의 눈으로 부활의 현장을 확인해도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자신만의 경험 세계 안에 갇혀서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The two disciples returned to their normal daily lives, but only Mary stood in front of the empty tomb. Let's imagine if you and I were Mary. It is unfair that the Lord died on the cross and furthermore, His dead body is stolen before she even has a chance to give the Lord a proper burial. While looking at the empty, open tomb, she thinks she cannot even bid a last farewell to Him, and extreme sorrow and grief surge in. Listen carefully please. Prejudice and stereotype harden one's mind like a rock. When she bends over to look into the tomb and sees two angles in white, seated where Jesus' body had been, one at the head and the other at the foot. They ask her, "Woman, why are you crying?" Without realizing they are angels, Mary pours out the same answer to them mindlessly like a stretched spinning LP record. "They have taken my Lord away, and I don't know where they have put him." Even if we witness the site of the resurrection with naked eyes, we cannot see the world beyond our own enclosed experience if our spiritual eyes are not open.

마리아의 똑같은 대화가 반복되지만 그 대상이 다릅니다. 전반부에서는 두 제자와 후반부에서는 두 천사와 말을 주고받고 있지요. 두 제자는 빈 무덤과 개어진 수건을 통해 주님이 사라진 것만 유추할 뿐입니다. 두 천사는 유추가 아니라 부활의 현장에 함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고정관념은 두 천사를 그저 두 사람으로만 인식하고 있을 뿐이지요. 때문에 처음 무덤을 찾았을 때보다 오히려 더 큰 슬픔으로 눈시울을 붉힙니다. 깊은 슬픔과 상실의 자리에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마리아는 뒤로 돌아서 주님을 바라보지만, 주님인 줄 깨닫지 못합니다.

Mary's identical conversions were repeated, but the objects were different. She had conversations with the two disciples in the former part, and she talked to the two angels in the latter part. The two disciples only guessed that the Lord was gone from the tomb through the empty tomb and folded linen. The two angels must have been together with the Lord in the resurrection site, and they did not guess it. However, Mary's stereotypical thoughts made her think that the two angels were just two persons. Therefore, she had bigger sorrow with tearful eyes than the time when she visited the Lord's tomb in the beginning. The Lord came to her in deep sorrow and heartache. Mary turns around and see the Lord standing there, but she doesn't realize that it is Jesus.

“Woman, why do you weep? Who are you looking for?” (v.15a, The Message)

한 번 붙잡힌 고정관념---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도둑질 당한 것이다---은 이제 시멘트처럼 견고하게 굳어져만 갑니다.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을 동산 관리인 취급합니다.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 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 가겠습니다.” (v.15b)

Now the stereotype---Jesus did not resurrect from death but was stolen---is firmly hardened in her heart like cement. She treats her dearly loved Lord as a gardener.

“Sir, if you have carried him away, tell me where you have put him, and I will get him.” (v.15b)”

물론 이 불쌍한 여인은 하도 울어서 눈 주위가 퉁퉁 부어 올랐을 겁니다. 하도 눈물을 쏟아내서 앞이 침침하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인 시신 모시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시신을 모시려면 먼저 시신을 찾아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눈 앞에서 계신데 계속 시신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순간 앞에 설 때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거부하고 내 뜻만 주장하니 주님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다시 살아나지 말고, 그냥 죽은 채로 있어야 그 시신을 찾아내 장사 지낼 수 있어요.

Of course, this poor woman cried so much that her eyes must have been swollen. Because she shed so many tears, her visibility might have been poor. She only concentrates on taking care of the dead body, which is the last, best thing that she can do to express her love for Him. To take care of the dead body, she needs to find it first. Although the resurrected Lord is standing before her, she keeps talking about the dead body. You and I often face similar situations. Because we deny God’s time and way, but only insist our will, the Lord has to die. We can find the dead body and bury Him only if He does not live again and remains dead.

“마리아야!” “라브니!” (v.16)

“Mary!” “Rabboni!” (v.16)

주님의 짧은 부르심과 여인의 외마디 대답은 마치 고압선에 감전된 것 같은, 숨을 멈춰 세우는 감동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이 여인의 이름을 친히 먼저 불러 주십니다. 이사야 말씀처럼 주님께서 마리아야! 이름으로 지명하여 불러 주십니다. 0.01초 찰나의 순간에 여인은 깨닫게 됩니다. ‘아, 동산 지기가 아니라 내 몸과 마음, 영혼까지 치유해 주셨던 주님이구나!’

The short exchange of calling and response between the Lord and the woman is a breathtaking moment. The resurrected Lord calls her first by name in person. Like the words from Isaiah 43:1, the Lord summons Mary by name. The woman realizes the Lord’s calling in a microsecond. “Oh! He is not a gardener, but the Lord who healed my body, mind, and soul!”

양들은 그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간다. (요한복음 10:3)

“The sheep listen to his [the watchman’s] voice. He calls his own sheep by name and leads them out.” (John 10:3)

처음 예수를 보고도 알지 못했을 때는 여인과 죽은 시체 예수와의 만남입니다. (요한20:14)

“마리아야!” “라브니!” 목자와 양이 다시 만난 순간입니다. (요한 20:16) 마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사울처럼 이제 마리아는 주님 앞에 다시 섭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여전히 부활의 의미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v.17a) 마리아는 주님을 영원히 육신의 모습으로 자기 곁에 두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함축적으로 고별 설교를 다시 드러내 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본문의 구조로 되돌아가 볼 시간입니다. 처음 구절인 1절은 마지막 구절인 18절과 병행 구조입니다.

At first, it was an encounter with the dead body of Jesus when the woman didn't recognize Him (John 20:14). Then, "Mary!," and "Rabboni!," come at the moment of encountering the watchman and the sheep (John 20:16). Mary stands in front of Jesus again as Saul did after something like scales fell from his eyes. But she still doesn't understand the meaning and the purpose of the resurrection. "Do not hold unto me, for I have not yet returned to my Father (v 17a)." Mary desires Jesus physically to stay with her forever. However, His plan is to send another Counselor, the Holy Spirit, by asking His Father. "I am returning to my Father" is the implication of His farewell message. Now, let me return to the parallel structure that I mentioned earlier. Note verse 1 and verse 18 are written in a parallel structure.

- 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다] (v.1)
- 가'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다] (v.18)
- A "Mary Magdalene went to the tomb. (v1)"
- A' "Mary Magdalene went to the disciples. (v18)"

첫 절과 끝 절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같은 마리아 입니까? 물론 같은 몸을 가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1절과 18절의 마리아는 이제 같은 사람일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무덤에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가다' erchetai라는 정확히 같은 동사가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가는 동기와 목적은 전혀 다릅니다. 첫 절은 밤 새 슬픔의 눈물을 흘리다가 무덤 앞이라도 가겠다는 마음입니다. 끝 절은 주님의 명령대로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전에는 무덤만 보았지만, 지금은 제자에게 가서 '주님을 보았다'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보았다'고 하는 동사가 약간 다른 형태로 사용됐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Is Mary who appears in the first and the last verses the same Mary? She is physically the same Mary of course. However, the two cannot be the same any more since she has met the resurrected Christ in person. Even though the verb 'erchetai/went' used for the disciples and the tomb is exactly the same, the motivation and the purpose are totally different. Verse 1 expresses her intention to present herself at the tomb after a night of long tears of sorrow. But verse 18 intends to witness the Lord's resurrection to the disciples at His request. The former mentions only the tomb but the latter witnesses the Lord. The phrase of 'had seen (v1)' or 'have seen (v18)' used here implies just the same meaning of simple 'see'.

다시 여인의 마음이 되어 봅시다. 시신을 도둑 맞았다고 굳게 믿었을 땐 슬픔과 탄식, 절망 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확신과 기쁨, 평강의 마음입니다. 깰 수 없는 고정 관념과 편견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마리아는 눈으로 확인한 예수부활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 속의 부활도 체험했지요. 우리가 믿은 기독교는 before와 after가 아주 분명한 종교입니다.

Let's pretend that we experience the same as she did. It must have been full of sorrow, sigh, and despair when she believed that the body of Christ was stolen. Upon encountering the resurrected Christ by herself, it becomes full of assurance, joy, and peace. She experiences freedom from unbreakable stereotypes and prejudices. Mary has experienced the resurrection not only through her own eyes but also in her own mindset. Christian faith, we believe, is a clear assurance of 'before' and 'after.'

오늘 말씀의 반전은 요한복음 20장이 2장과 병렬구조라는 점에서 발견됩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도 사흘째 되는 날 (요한 2:1) 곧 안식 후 첫날입니다. 포도주 맛을 보고도 어디서 온 것인 줄 모르는 하객들. (요한 2장) 부활 현장, 심지어 주님을 목격하고도 주님인 줄 모르는 제자들. (요한 20장) 요한복음 기자는 부활 사건을 결혼예식 축제에 빗대어 묘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이제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시간입니다.

A turning point of today's message is discovered in the parallel structure of John Chapter 20 and 2. "On the 3rd day a wedding took place in Cana. (John 2:1)". It also happened on the 1st day after Sabbath. In one story the guests didn't recognize where the tasty wine was originated and in the other the disciples at the site of resurrection didn't recognize their Lord (John 20). The author of the Gospel of John describes the resurrection by comparing it with the wedding ceremony. Indeed, the resurrection of the Lord is the time for us to become His bride.

복음서 읽다 보면 참 흥미로운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부활을 믿었을까?' 유대 종교 권력은 예수가 다시 살아날까 봐 겁겁으로 무덤을 지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주님인 줄 알아채지 못합니다. 눈과 귀가 닫혔던 Helen Keller는 무엇이 진정한 바라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While reading the gospel books, we often discover interesting ironies. 'Who have really believed in the resurrection?' Jewish religious leaders kept the tomb in protective layers for fear of the possible resurrection of Jesus. On the contrary, disciples didn't recognize their Lord even after encountering Him after His resurrection. Helen Keller, both deaf and blind, describes what is real sight.

The only thing worse than being blind is having sight but no vision. -Helen Keller-

혹시 지금 육의 눈은 열려 있지만, 영의 눈은 닫혀 있지 않습니까? 멀쩡하게 눈을 뜨고 있지만, 내 곁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름으로 친히 불러 주셔도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묻고 계십니다.

Is your spiritual sight closed while physical sight opened by any chance? Are your open eyes ignoring the resurrected Christ standing next to you? Can't you hear our Lord Jesus call you by name? He is asking you with His sweet voice.

“왜 울고 있느냐? 무엇을 찾고 있느냐?”

“Why are you crying? Who is it you are looking for?”

우리가 그토록 절박하게 찾고 있는 것이 예수의 시신입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입니까? 굳게 걸어 잠근 고정관념과 편견입니까? 아니면 부활의 소망과 확신입니까? 지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 주십니다. “아무개야!” “주님!” 사랑의 주님께 다시 나아 가십시오. 부활의 소망을 살아내는 복된 한 주가 되길 축복해 드립니다.

Is it His body that we are desperately looking for? Or, is it the Lord who is risen from death? Is it our strongly fixed conception or prejudice? Or, is it hope and assurance of our faith in His resurrection? He calls us by our names now. “Hey you!” “Yes, Lord!” Let's come before Him. I pray that you would face a blessed week with a hope of the resurrection!